



더채움치과의원 김경록 원장

대표적인 치과 치료 ‘임플란트’...“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임플란트를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의료진의 경험과 노하우가 선택의 기준”

자연치아를 상실하게 됐을 때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이면서 대중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진 시술은 임플란트다. 과거에는 치아가 상실된 경우 틀니를 많이 사용했다. 그러나 틀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치조골 흡수를 야기하여 틀니의 사용도 어려워질 뿐 아니라, 부가적인 치과 치료조차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임플란트는 틀니처럼 끼웠다, 뺐다 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고, 틀니가 자연 치아 저작력 대비 최대 약 30% 정도의 기능을 회복하는 반면, 임플란트는 최대 80~90%까지도 저작기능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선호도가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치아가 상실된 경우 가장 대중적인 치료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더욱이 임플란트는 심미적인 면에서도 자연치아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심미성이 뛰어나다 보니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엔 초창기에 비해 임플란트 개발업체의 기술이 발달하고 치과 전문의의 경험도 축적되면서 만족도와 완성도가 높아진데다 건강보험의 치과 분야 적용 범위도 넓어져 향후 임플란트 시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대중화되기는 했어도 임플란트는 여전히 난이도 높은 시술이다. 정확한 자리에 식립하지 않으면 사용 중 불편함이 지속될 수 있고 심하면 흔들리거나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해당 치과가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풍부한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신중하게 치과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서다.

고천주 기자 gcj@weeklysisa.co.kr

고난이도 시술 ‘네비게이션 임플란트’...“의료진이 직접 진단하고 제작하는 곳에서 해야”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색상과 기능, 강도 면에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주변 치아의 손상 없이 원래 자신의 치아였던 것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러 단계의 수술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의 불편함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네비게이션 임플란트’가 기존 임플란트 시술 시의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네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기존의 절개시술에 비해 수술시간이 짧고 병원 내원 횟수도 적어 나이가 많은 고령의 환자 또는 당뇨와 고혈압 등의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들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말 그대로 도착지점을 안내하는 차량 네비게이션과 같은 기술을 이용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모의수술을 통해 개인의 구강상태에 알맞은 임플란트 식립 경로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원리다. 네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일반 임플란트 수술보다 수술 후 붓기나 통증, 출혈이 거의 없어 회복 속도가 빠르고

잇몸절개를 할 필요가 없어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 적고 부작용 위험도 매우 낮은 편이다.

더채움치과의원 김경록 원장은 “하지만 네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이 없다면 결과는 천양지차”라며 “치과를 선택할 경우 해당 치과 의료진이 직접 네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위한 진단 및 장치 제작을 하는지, 수술 중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로 변경하여 수술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니임플란트, 전악임플란트 등 모든 임플란트 치료는 ‘의료진의 실력’이 가장 중요

치아는 각 부위별로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앞니는 심미적인 역할이 지대하다. 게다가 앞니는 발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앞니가 손상되거나 상실된 경우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되는데 기존의 앞니가 갖고 있던 색이나 모양 등을 완벽하게 재

현해야 하고 앞니의 치조골 형태는 어금니와 달라 제법 까다로운 시술로 알려져 있다.

김경록 원장은 “앞니 임플란트는 잇몸을 보존하면서 자연치아를 재현하여야 하므로 수술의 난이도 자체가 높다”며 “따라서 앞니를 상실했다면 앞니 치료의 경험이 많고 숙련된 치과의사의 수술 및 보철적 고려가 필요하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앞니의 기능과 심미를 동시에 회복하기 힘들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임플란트 시술은 아직까지도 시술받는 환자의 연령대가 고령인 경우가 많다 보니 치아 전체를 상실한 무치악 사례를 만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이렇듯 치아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무치악 환자의 경우 전악임플란트(혹은 전체임플란트)가 추천된다.

대부분 고령층의 환자가 많은 전악임플란트는 치아가 전반적으로 없는 경우에 시술되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 상태와 잇몸뼈의 상태 및 그 외 다양한 요소들을 꼼꼼하게 고려한 시술이 필요하다. 전악임플란트는 튼튼한 잇몸뼈에 6~10개의 임플란트를 식립 후 그 상부에 보철물을 연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잇몸뼈의 상태에 따라 뼈이식, 상악동거상술 등의 추가적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

김경록 원장은 “이처럼 까다롭고 어려운 전악임플란트 수술은 의료진의 실력이 중요하다”며 “개 개인의 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한 계획이 필요하고 계획적인 치료로 실패 확률을 낮춰야 한다. 어려운 케이스에 대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수술을 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환자의 건강 회복과 마음 치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치과...“환자와의 유대가 중요”

한편, 임플란트는 정확한 시술 못지 않게 사후관리가 중요한 시술이다. 임플란트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 치아처럼 청결하게 관리해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치료 완료 후에는 3~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유지 관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주 다닐 수 있는 치과에서 진료받는 것이 좋다. 영구치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반영구적인 임플란트도 관리가 소홀하면 상태가 나빠지기 쉽다.

더채움치과는 국가인증수련기관에서 4년의 정식교육과정을 거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10

년 이상 임상경력의 전문의가 진료를 한다. 특히 치과보철과 전문의인 김경록 원장과 치과교정과 전문의인 김난희 원장 부부가 상주하며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호흡이 잘 맞을 수밖에 없다. 두 원장은 안전한 치과, 진료의 질이 높은 치과,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치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자와의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늘 환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환자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김경록 원장은 “더채움치과는 환자분의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며 “오늘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치료방법으로 부끄러움 없이 진료하겠다”고 밝혔다. **S**



더채움치과의원 김경록 원장

▲ 보건복지부 인증 치과보철과 전문의 ▲ 대한치과보철학회 치과보철과 인정의 ▲ 대한치과보철학회 교육지도의 ▲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공보기획이사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석사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박사수료 ▲ (前)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 ▲ (前)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임상연구조교수 ▲ (前)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전임의 ▲ (前)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치과병원 치과보철과 전속지도 전문의 ▲ (前)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치과보철과장 ▲ (前)국군창평병원 치과보철과장 ▲ (前)국군의무학교 치과부장 ▲ 대한치과보철학회 정회원 ▲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우수회원 ▲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정회원 ▲ 대한디지털치의학회 정회원 ▲ 매일경제TV “건강스페셜” 자문의 ▲ 매일경제TV “건강백세스마일” 자문의 ▲ 한국경제TV “건강매거진” 자문의 ▲ 한국경제TV “아해보세요” 자문의 ▲ 2020 대한민국 신약 의료대상 대상수상 ▲ 지역사회 공헌 국회의원 표창